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샵

나누면서 배워요

지난 4월 3일 기업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시스템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샵'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은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사례를 타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타 기업의 활동사례를 궁금해 했던 참석자 중 약 70% 이상이 행사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이번 '기업 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샵'은 KT, 대한항공, 현대정보기술, G마켓 등 KISA가 매년 개최했던 정보보호大賞의 수상 기업과 KISA ISMS 인증 획득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가 발표자로 나서, 실제 정보보호 활동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 정보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사례는 모든 기업이 대외 기밀로 간주하는 것으로, 공개되는 부분은 대개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워크샵에서는 모든 기업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일률적인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각 기업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같은 사실은 그간 정보보호 관련 세미나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이날 워크샵에서는 단순 이론에 근거한 '정보보호 성과관리'나 '내부조직 관리'가 아닌 '◎◎' 기업의 정보보호 성과관리 운영방안, '◆◆' 기업의 내부조직 관리 등 각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여기에 '씨에이에스', 'CIC코리아' 등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소개되는 등,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현실적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사례' 등은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였으며, 추가로 제시된 KISA 차원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강화전략이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후문이다.

이번 워크샵을 준비한 KISA 기술정책팀 김성훈 팀장은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 기업의 성격에 맞는 정보보호 활동 모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워크샵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A에서는 기업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보보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정보보호대상을 시행해 왔으며, 각 기업이 정보자산, 인력, 조직 전반에 대해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 수립·운영하는 지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해 주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ISMS)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 정보보호 자가측정, 현장방문 취약점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Q 이번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샵을 개최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

A 현실적으로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공유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이번 워크샵의 강연내용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A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정보보호 담당자도 지정돼 있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은 대기업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행사를 기업정보보호팀과 함께 추진했고, 워크샵의 사전등록 과정에서 참가대상을 정보보호 담당자 외에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로 포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 어떻게 정보보호 활동을 펼쳐나가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사례 공유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없애주고자 했던 것이 이번 워크샵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



▲ 정책개발단 기술정책팀 김성훈 팀장

Q 강연 후 참석자들도 이러한 목적에 만족했다고 생각하나.

A 행사 후 실시된 설문을 살펴보면, 참석자 중 70% 이상은 강연내용에 만족해 했고, 또 이번엔 소개된 사례를 각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담당자들 역시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기업 내 정보보호 활동의 활성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얻은 소득이라면 기업 정보보호 관계자들이 KISA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Q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는 KISA에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나.

A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담당자들의 경우, 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개발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반면, 중소기업의 담당자들은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물론 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공통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Q 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샵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해 달라.

A 참석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워크샵을 통해 그룹 활동 및 실습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산업별 수준별 핵심 경쟁요소에 대한 기술소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모든 요구를 한 번의 행사에서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참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참가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KISA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S